



머리글

유상철 세례자요한 신부 / 살레시오회

사랑의 스위치를 켜 주세요

함께 사는 청소년들에게 자주 하는 잔소리는 ‘불 좀 끄자’입니다. ‘여기저기 온 동네 불 다 켜고 다닐 거야?’하고 소리쳤더니 한 친구가 ‘아~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자나요’ 하고 너스레를 떨니다.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말도 잘하고 똑똑한 요즘 청소년들을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를 환하게 비추는 불빛은 전기가 흘러 전구에 에너지가 더해졌을 때 빛을 밝힙니다. 스위치는 전기가 필요할 때 흐를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스위치를 켜면 밝아지고 끄면 아껴 두었다, 필요할 때 밝힐 수 있게 됩니다. 스위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운 전기는 버려지고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없게 됩니다.

2년 동안 스위치를 끄고 앞으로 만나게 될 청소년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아껴 두었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밝은 에너지를, 주님 사랑이 가득한 에너지를 짹 짹 넣어줘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으로 ‘빛의 사람들’ 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작과 함께 분류심사원·소년원 교정사목을 이어받아 딱 한 번 간헐있는 청소년들을 만나고 2년 동안 간헐있는 친구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스위치만 켜면 되는데 오랫동안 켜지 않아 굳어버렸는지 스위치를 정비할 수 있도록 아껴 둔 에너지를 또 다른 청소년들에게 쓰도록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부족했지만 간헐있는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나누는 빛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와 같이 주님 사랑의 에너지를 아껴 둔 ‘빛의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연중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스위치를 켜고 사랑을 전하며 간헐있는 이들의 마음에 주님 사랑의 빛을 전할 때입니다. 사랑의 스위치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기쁘게 스위치를 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 교정시설 성탄 꾸러미 지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미사를 봉헌할 수 있을 거란 기대와 다르게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등장과 확진자의 증가로 또다시 출입이 통제되고 미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로 2년 동안 모든 행동과 생활이 제한되어 이종교를 겪고 있을 수용자들을 위하여 주님 성탄 대축일을 맞아 과자 꾸러미를 지원하였습니다. 9가지의 다양한 과자가 담겨있는 꾸러미는 서울구치소 2,600개, 서울동부구치소 2,300개, 서울남부구치소 1,900개, 서울남부교도소 1,400개가 전달되었습니다. 올해도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할 수는 없었지만, 과자 꾸러미로 인해 수용자들의 지친 마음에 조그마한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1월 3일 명동 가톨릭회관 3층에서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으로 42명의 신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미사가 재개됨에 감사사를 전하며, “진정한 새해는 해가 바뀌는 때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때 시작됩니다. 동트는 날이 새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로 보일 때 새날이 밝아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을 마음에 담고 살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는故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으로 강론을 시작하였습니다. “분명 사회 안에서 죄를 지었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형제요, 자매라는 생각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후원하고 봉사해주시는 분들은 이미 이것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라며, 우리 모두 추기경님이 말씀하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후원회원들과 더 자주, 더 가까이하기 위해 첫째 주 월요일 10시 30분 명동 가톨릭회관, 둘째 주 월요일 10시 30분 길음동성당, 셋째 주 월요일 10시 30분 광장동성당, 넷째 주 10시 30분 양천성당에서 휴일을 제외하고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미사가 봉헌됩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 수용자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가족분들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은 환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오뚜기처럼 삼시다.

이동선 히야친타_서울구치소 여사 대표봉사자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 봄 길 / 정호승 -

옛말에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게 호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마침 2022년 올해는 壬寅年을 맞아 검은 호랑이의 기개와 지략을 발휘해 전 세계적 역병인 코로나를 일격에 휘어잡을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을 때 오고 갈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 인생을 사는 맛이요 행복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전시상황을 연상케 하는 ‘코로나 시국’이라는 현 상황에서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장소를 불문하고 만남과 대화, 여행

과 단체, 여가활동이 인원수에 제한되고 어디를 가든 개인 출입 확인을 해야만 하는 슬픈 현실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교정시설 봉사가 재개되기를 매일 화살기도와 수용자들을 기억하며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를 통해 만난 교정시설 봉사 20년 차 선배는, 지금의 이 시간이 얼마나 허무한지, 수십 년 쌓아온 믿음, 희망, 사랑, 헌신의 공든 탑이 무너지는 듯한 비통한 심정이라 말합니다. 수용자들과의 만남은 아픔과 고통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찬미와 기도로 마음을 나누고, 관심과 사랑을 확인해 가는 기쁨과 소통의 시간이었기에 코로나 시국에서의 만남 관계 단절의 장기화로 간혀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혹시나 삶의 활력을 잃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지면을 빌어 안부를 묻습니다.

코로나로 만 2년의 교정시설 봉사 공백기로 교정시설의 형제, 자매님들은 더더욱 춥고 외롭고 고달픈 시간이었기에 2022년 새해에는 만복이 깃드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삼시다.^^



칼 렵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칼렐은 ‘개’, ‘공격자’, ‘종’, ‘노예’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또한 “마음을 온전히 드리다”, “충성된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파란 광야에 도착하여, 지파별로 한 명씩 수장을 보내어, 약속된 땅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됩니다(민수 13,1-3). 칼렐은 유다 지파의 대표(민수 13,6)로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옵니다. 하지만 칼렐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크나즈 사람 여퐁네의 아들 칼렐’이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민수 32,12; 여호 14,6; 여호 14,14). 이방인임에도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발되어 파견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인 선민의식이 강하고, 이방인에 대한 배타가 강한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좋고, 또한 그 능력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낯선 곳을 정탐하러 나설 정도로 책임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들을 파견하면서 한 지시는 꽤 구체적입니다(민수 13,17-20). 심지어 과일도 직접 가져오라고 하며, 특히 땅에 대한 언급은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땅의 정찰은 하루 이틀이 아닌 사십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다녀온 정찰대들은 가져온 과일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헤브론에 아낙의 후손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듣자, 백성들은 아우성치고, 통곡까지 합니다. 그러자 칼렐은 여호수아와 함께,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시키며 오히려 용기를 북돋웁니다. “어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민수 13,30) 하느님을 믿고, 나아가자고 독려합니다.

“우리가 정찰한 저 땅은 정말 무척이나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저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덮어 주던 그들은 이미 견혀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민수 14,7-9)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칼렙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나누게 될 때, 칼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여든다섯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다며, 가나안 땅에서 그 험준한 산악지방, 거인족인 아낙인이 산다는 헤브론으로 자청해서 갑니다. “저 산악 지방을 저에게 주십시오. (...) 아낙인들이 저곳에 살고 있고, 성읍들은 클뿐더러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만 주신다면,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제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여호 14,12)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좋은 모범이 되어줍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험한 길을 나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십자가를 맞이할 때, 그 동안 내 신앙의 대가가 이거냐, 기도의 응답이 이러냐고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가나안땅을 피고로 생각한다면, 재판정에서 일반인과 여론, 검사들은 피고의 잘못에 집중하는 반면, 변호인은 피고의 장점이나 그 잘못이 피치 못하였음을 변호한다는 점에서 칼렙을 변호인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변호인보다는 오히려 교정 사목에 종사하는 종교인들이 칼렙과 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렙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정 사목자, 봉사자, 그리고 우리 수용자들 모두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농인 도전에 비해 우리는 약해 보입니다. 특히 수용자들은 자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땅이 맞느냐며, 그냥 굳이 왜 이 길을 나섰느냐며 투덜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마치 이집트의 종살이 하듯이 죄의 종살이 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정사목자들은 수용시설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방인이지만, 먼저 체험한 하느님 신앙을 함께 나누며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칼렙이 마음을 온전히 드린 ‘충성된 자’인 것처럼, 교정 사목의 사목자, 봉사자는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반성해봅니다. 더 나아가 참 지도자의 덕목을 여기서 봅니다. 헌신하면서, 이상을 향해서 독려하고 격려하고 함께 충실하게 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다음 달 대선에서 뽑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소자들의 인격과 양심이 담보와 보증입니다

김일호 미카엘 / 기쁨과희망은행 본부장

기쁨과희망은행은 전과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하기도 힘들고,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사회 경험 미숙으로 인해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출소자들을 위해 마련된 무담보 대출 은행입니다.

무담보 대출인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신용불량인데다가 출소자인 그들을 믿고 돈을 대출해 주거나 보증을 서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은 출소자라는 사회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그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내적인 의지와 동기를 부여하고 외적인 기술 습득을 제공하여 창업의 기회를 마련하여 소자본 창업 대출을 통한 진정한 자활을 지원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무담보 대출 은행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성공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데도 기쁨과희망은행은 출소자들에 대한 믿음과 관계 안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은 무담보 대출 은행이지만 출소자들의 인격과 양심이 담보와 보증입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은 출소자인 그들의 인격과 양심을 믿고 출발합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받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새로운 삶을 출발할 용기와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대출해주는 은행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함으로써 세상에 기쁨과 희망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출소자들이 자립해감으로써 그들 스스로 편견과 불신의 벽을 함께 허물어 나갈 수 있습니다. 출소자들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어 함께 살아가는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기에 기쁨과희망은행은 출소자들에게 “기쁨”이고 수용자들에게는 “희망”뿐만 아니라 서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기쁨과 희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소자들의 3년 이내 재범역률은 25.2%이며, 2019년 현재 국내 수용자 1인당 연간 교정 비용은 2,533만 원으로 201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158조이며 또한, 재범률이 1% 낮아질 때마다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903억 원이 절감됩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근거해볼 때 기쁨과희망은행에서 출소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자금 대출의 효과는 재범 방지와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은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고, 창업의 성공과 실패로 평가받는 구조를 갖추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그리스도 복음화 사업이라는 보다 큰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 찬미 예수님.

신부님의 환한 미소가 보고 싶습니다.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신부님께서 보내 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 삶에 가장 행복하고. 값찬인
예수님 사랑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신부님 덕분입니다.
신부님 덕분에 잠깐이지만 내 인생입니다.
언제나. 기도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 존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21. 12. 12
윤나연나드림

*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는 자매님이 현대일 신부님께 보내는 안부 편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 3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 3월 7일(월)
- ▶ 3월 14일(월)
- ▶ 3월 21일(월)
- ▶ 3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 / 중서울 길음동성당
- / 동서울 광장동성당
- / 서서울 양천 성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

♥ 부산교구 양산 성모올타리

출소자들의 자립을 돕는 공동체 성모올타리는
일반 기술자와 출소자들이 함께
우리밀 100%로 빵을 만듭니다.
인터넷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 이레우리밀)

※ 구입문의 : 055)367-2232 / 3만원 이상 주문 시 택배비 무료

※ 농협 351-0425-2610-23 (이레우리밀)

신한 140-012-398858 (이레우리밀)



- ▶ 수제청국장식빵 ₩5,000
- ▶ 수제상투과자 ₩5,000
- ▶ 수제단팥빵 3개 ₩5,000
- ▶ 수제통밀식빵 ₩5,000
- ▶ 수제엄마빵 5개 ₩10,000
- ▶ 수제소보루빵 3개 ₩5,000
- ▶ 우리밀호두과자 30개 ₩10,000
- ▶ 엄마찰보리빵 20개 ₩10,000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12/15~1/12)

2021년 12월~2022년 1월에는 김나영 루시아, 김태기 베드로, 문정식, 임용숙 레지나, 전영옥 마리아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